



인도의 2010년 경제 동향과 노동시장 전망

신진영 (인도 네루대학교 사회학 박사과정)

■ 머리말

2010년 2월 인도 정부는 예산안 발표 장소에서 4월부터 시작되는 2010~2011 회계연도의 인도 GDP 성장률이 8.75%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세계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2009년 각국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서도 인도는 빠른 회복세를 보였다. 작년 하반기부터는 인도 경제가 가까운 시일 내에 정상 궤도에 진입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이 대두되었으며 올해 들어서면서 각종 경제지표들은 이것을 뒷받침하였다. 인도 정부도 경기가 거의 회복되었다고 판단하고 2010~2011년 회계연도 부터는 경기부양책을 철회할 의사를 내비쳤다.

인도 경제가 정상 궤도로 진입한 것으로 평가되는 가운데 인도 고용시장 전망도 밝다. 올해부터 인도 공기업과 민간기업들은 기존에 경기침체로 미루어 오던 확장 계획을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기고 있다. 통신, 자동차, 생필품의 국내 수요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어 이 분야에서 대규모 고용이 창출 될 것으로 보인다. 인도 고용창출의 대표 주자인 IT 및 ITeS 부문에서도 고용창출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인도 정부가 2010년 대규모 사회 간접 자본 프로젝트 시행 계획을 발표하면서 건설 부문에서 대규모 고용이 창출 될 것으로 보이는 등 민간 영역뿐 아니라 공공 부문에서도 대규모 고용이 창출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¹⁾ 이 글에서는 인도 정부와 기관 및 언론 자료를

1) 인도 정부가 시행 계획 중인 대형 건설 프로젝트는 의도적인 고용창출을 위한 경기 부양책의 의미보다 기업 운영에 필요한 간접 자본을 확충 하기 위함이다.

통해 인도 경제와 노동시장 동향 및 전망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인도의 경제 동향

금융위기의 여파로 2009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국가들이 속출하는 가운데서도 인도는 거대 내수시장 주도로 경기가 빠르게 회복하였다. 인도 정부는 2009년 경제성장률을 7.2%로 추정하며, 인도가 세계 금융위기 상황에서도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올 2월 말 인도 정부는 예산안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2010~2011 회계연도의 인도 경제성장률을 8.75%로 예측하며, 인도 경제가 정상 궤도에 진입할 것이라는 자신감을 표명하였다.

인도의 높은 경제성장률은 국제적인 신용평가에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올 3월 국제 신용평가기관인 S&P(Standard & Poor's)는 인도의 신용평가 등급을 '부정적'에서 '안정적'으로 평가지수를 높여 인도가 세계 금융위기에서 벗어났다는 낙관론에 힘을 실어주었다.²⁾

인도의 주식시장은 세계적으로 경기침체에서 가장 빠르게 회복되는 국가로 지목되고 있으며, 주식시장에서 강세가 유지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³⁾

〈 표 1〉 인도의 연도별 GDP 성장률

(단위: %)

	2007~2008	2008~2009	2009~2010	2010~2011
GDP	9.0	6.7	7.2	8.8

주 : 2010 ~ 2011년 전망치임.

출처: 인도 중앙은행(RBI) 2009, Union Budget 2010.

2) Business Standard, 2010년 3월 20일 "Indian Economy: On strong footing" <http://www.business-standard.com/india/news/indian-economystrong-footing/389181/>

3) Business World, 2010년 3월 8일 "The Great Recovery" http://www.businessworld.in/bw/storyContent/2010_03_08_The_Great_Recovery.html

2008년 금융위기로 뭉바이 증시 섹스 지수(BSESEN)는 1만 선이 무너졌었으나, 2009년 5월 말에는 1만 5,000선을 회복하였다. 작년 9월부터 뭉바이 증시 섹스 지수는 1만 6,000선 이상을 꾸준히 유지하였고, 최근에는 1만 8,000선 돌파를 앞두고 있다.⁴⁾ 인도 주식시장에 비해 뮤추얼 펀드의 회복세가 다소 더디긴 하지만 경기침체가 바닥을 쳤던 2008년 12월과 비교하여 2009년 12월에는 90%까지 회복하였다.⁵⁾

인도의 경제 회복은 소비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인도는 금융위기 이후 경기침체로 소비가 감소하면서 한때 디플레이션이 우려되기도 하였다.⁶⁾ 그러나 2009년 2/4분기부터 각 부분에서 소비가 되살아났다. 2009년 12월 산업생산 증가율 20년 만에 최고치인 16.8%를 기록하는 등 소비가 생산과도 빠르게 연결되고 있다.

경기 활성화에 대한 기대는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지고 있다. 작년 2월에서 올 2월까지 식료품 가격은 17.9% 올랐으며, 2월 이후로도 식료품 가격은 계속 인상되고 있다. 작년 3월에 비해 올 3월 초의 도매물가지수(Wholesale Price Index)는 14% 오른 것으로 집계되었다.⁷⁾ 민간 기업들이 공산품 가격 인상을 계획하고 있고, 정부도 석유 가격 인상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 올 상반기에는 두 자리 인플레이션이 전망된다. 비록 인도 정부는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인도 중앙은행(RBI)이 경기부양책으로 억제하던 금리의 인상까지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져 인플레이션이 쉽게 잡히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4) <http://in.finance.yahoo.com/q/bc?s=%5EBSESEN&t=2y>

5) http://www.businessworld.in/bw/story Content/2010_03_08_The_Great_Recovery.html

6) RBI Report <http://rbi.org.in/scripts/AnnualPublications.aspx?head=Macroeconomic%20and%20Monetary%20Developments&fromdate=07/26/2009&todate=07/28/2009>

7) Business Standard, 2010년 3월 20일 “Indian economy: On strong footing” <http://budget.business-standard.com/printpage10.php?autono=389181&tp=>

■ 노동시장 동향과 전망

실업률

인도는 만성적으로 실업률이 높은 편이다. 경제 개방 이후 눈부신 경제성장이 실업률 감소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면서 ‘고용 없는 성장’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다. 그러나 매년 1,300만 명에 가까운 신규 노동인구가 노동시장으로 편입되는 것을 고려하면 2000년 10%에 가까웠던 실업률이 2008 금융위기 이전에 7%대로 떨어졌다는 것은 고용창출이 적지 않았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그러나 2008년 하반기 금융위기로 노동력 집약 산업인 귀금속 가공업과 섬유 산업에서 대량 해고가 있었고 다른 산업도 연쇄적으로 타격을 받아 노동시장이 급격히 위축되었다. 2008년 경기 침체 이후 실업률에 대한 공식적인 인도 정부 통계는 나오지 않았지만, 외부 평가기관에서는 경기 침체 이후 실업률이 증가하여 2009년 인도 실업률은 10%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⁸⁾ 그러나 인도 고용시장은 2009년 하반기부터 회복 징후가 나타났다. 세계경기침체로 수출 위주의 산업에서 회복은 느렸지만, 2009년 하반기부터 일부 내수 산업에서는 고용이 창출되었다.⁹⁾ 인도 노동부는 국제 금융위기로 고용시장이 위축되었던 2008년 3/4분기부터 2009년 3/4분기 사이에도 약 15만 명의 일자리가 창출되었고¹⁰⁾, 2009년 하반기부터 인도 노동시장에서 실업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발표하였다.¹¹⁾

8) CIA(2010), “The World Fact Book”, <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geos/in/html>

9) The Ministry of Labour and Employment(2009), “Report on Effect of Economic Slowdown on Employment in India (July–September 2009)”, labourbureau.nic.in/Fourth%20quick%20quarterly%20survey%20report.pdf

10) labourbureau.nic.in/Fourth%20quick%20quarterly%20survey%20report.pdf

11) Business Standard, 2010년 2월 26일자 “Jobs generated during slowdown” <http://www.business-standard.com/ecosurvey10/storypage.php?autono=386911>

분야별 고용창출 전망

2010년이 시작되면서 정부와 언론은 대규모 고용창출에 대한 예상과 기대들을 보도하였다. 인도는 2009년 하반기부터 인도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확장을 보류하던 기업들이 올해부터 확장을 본격화하고 있고, 일부 공기업도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대규모 일자리창출이 기대되고 있다. 인도 경제지 비즈니스 월드(Business World)는 자체 조사를 통해 2010~2011 회계연도에 약 90만 개 이상의 사무직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측했다.¹²⁾ 이는 약 100만 개의 사무직 일자리가 창출되었던 금융위기 이전인 2008년 상반기 수준으로 회복된 것이다. 분야별로는 건설, IT 분야, 자동차 산업에서 일자리창출이 가장 많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고, 통신 분야도 일자리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건설업

인도 정부의 사회간접자본 확충 계획에 따라 건설 부문에서 대규모 일자리창출이 기대되고 있다. 인도 정부는 경제발전에 필요한 도로와 항만, 공항 건설에 대규모 투자할 계획을 발표하였고, 주택과 상업 지구 건설 등도 활성화될 것으로 보여 건설 업계에서 대규모 일자리창출이 기대되고 있다. 인도 정부의 건설개발위원회(Construction Industry Development Council)에 따르면, 엔지니어와 화이트칼라 직종에서만 약 17만 명의 일자리창출이 기대되고, 건설 노동자의 경우 180만 명의 일자리창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¹³⁾

IT 및 ITeS

인도에서 IT와 ITeS 부분은 지난 몇 년간 일자리창출에 가장 많이 기여를 한 부문 중 하나로 경제회복과 더불어 대규모 고용이 기대된다. 이 부문에서는 2008년 국제 금융위기로 인한 미국과

12) Business World, 2010년 2월 12일자 “Click Here To Apply” http://www.businessworld.in/bw/2010_02_13_Click_Here_To_Apply.html

13) http://www.businessworld.in/bw/2010_02_13_Click_Here_To_Apply.html

14) http://www.businessworld.in/bw/2010_02_13_Click_Here_To_Apply.html

유럽시장의 악재로 작년 1/4분기에 약 5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지만 올해 35만 명을 새롭게 고용될 것으로 보인다.¹⁴⁾ 이는 IT 및 ITeS 분야가 호황을 누렸던 2005~2008년 매해 40만 명을 고용하던 고용 규모보다 못 미치는 수준이지만 매우 양호한 것으로 평가된다.

금융권

인사 컨설팅 업체들은 은행 및 금융권에서 약 10만 명이 새롭게 고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인도 최대의 국영 상업은행인 SBI(State Bank of India)는 3만 명을 신규 채용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으며, 주정부나 중앙정부에서 운영하는 은행권에서 4만 명 이상을 고용할 것으로 보인다.¹⁵⁾ 특히 국영 은행들의 평균 연령이 53세로 1970년대에 채용된 관리자급이 향후 5년간 퇴직할 것으로 보여 필연적으로 신규 채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¹⁶⁾ 또한 SC 은행과 Axis 은행 등 주요 민간 은행들도 작년 금융위기로 위축되었던 확장 계획을 조심스럽게 실행할 것으로 보여 신규 채용이 기대된다.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산업

2008년 금융위기로 인도의 자동차 산업은 타격을 많이 받았지만 인도 정부의 세금 감면 조치를 포함한 소비 활성화 정책과 내수 소비가 되살아 나면서 빠르게 회복되어, 지난 6개월간 인도의 자동차 산업은 전례 없는 호황을 누렸다. 이러한 성장세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이 부문에서 대규모 고용창출이 기대되고 있다. 마루티 스즈키, 현대, 마힌드라 등 주요 완제품 자동차 회사들은 1,000명 이상 고용을 계획하고 있으며, 자동차 부품 회사에서도 고용창출이 기대되고 있다. 인도자동차협회(Society of Indian Automobile Manufacturers)는 자동차 분야에서 올해계연도에 약 20만 명의 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¹⁷⁾, 2012년까지 500만 명이 직·간접으로 고용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¹⁸⁾

14) http://www.businessworld.in/bw/2010_02_13_Click_Here_To_Apply.html

15) India Today, 2010년 3월 5일 “Jobs are back” <http://indiatoday.intoday.in/site/Story/86782/Cover%20Story/Jobs+are+back.html>

16) http://www.businessworld.in/bw/2010_02_13_Click_Here_To_Apply.html

17) http://www.businessworld.in/bw/2010_02_13_Click_Here_To_Apply.html

18) <http://indiatoday.intoday.in/site/Story/86782/Cover%20Story/Jobs+are+back.html>

의료 산업

의료 부문은 경기침체를 겪었던 지난 18개월 동안 해고 없이 고용이 창출되었던 부문으로 경기 침체 기간에도 15% 성장하였으며, 인도의 의료관광 산업은 2012년에 5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국내적으로도 인도 국민들의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의료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어 이 부문에서 올해 약 30만 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2012년에는 약 900만 명이 이 부문에 종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¹⁹⁾

교육 산업

인도의 초등학생은 약 1억 3,000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반면, 현재 인도의 교육 인프라와 교사 모두 부족한 상태이다. 따라서 향후 몇년간 국·공립과 사립 학교 모두에서 교사의 수요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인도의 교육열도 높아지고 있어 교육 분야는 떠오르는 고용시장 중 하나이다. 현재 약 970만 명이 교육 부문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올 회계연도에는 약 8만 명의 신규 고용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²⁰⁾

이외에 급속히 성장하는 산업인 통신 산업에서 대규모의 채용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분야에는 지난 2년간 7개 신규 업체가 이 분야에 뛰어들었고, 몇 개월 이내에 서너 개의 신규 업체가 진입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 약 10만 명의 신규 채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²¹⁾ 또한 경기침체로 주춤했던 바이오 산업과 의약 산업에서도 대규모의 채용이 기대되고 있다.

■ 임금 동향 및 전망

2010년 인도는 소비자물가 인상과 기업의 고용 확대로 두 자리 임금인상이 예상되고 있다. 기업 확장이 가속화되면서 기업들 간에 인재 확보 경쟁이 치열해졌다. 기업들은 기존 인력의 근속

19) <http://indiatoday.intoday.in/site/Story/86782/Cover%20Story/Jobs+are+back.html>

20) <http://indiatoday.intoday.in/site/Story/86782/Cover%20Story/Jobs+are+back.html>

21) http://www.businessworld.in/bw/2010_02_13_Click_Here_To_Apply.html

유도와 우수한 인재 채용을 위해 임금인상을 하고 있으며, 경쟁 기업의 임금인상을 기준으로 자신들의 인상률을 정하고 있다. 글로벌 인사 컨설팅업체인 휴잇(Hewitt Associates)사는 2010년 인도의 평균 임금인상률을 10.6%로 예상된다고 발표했다²²⁾. 또한 인도가 아시아에서 최고의 임금인상률을 기록할 것이며, 아르헨티나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임금인상률이 높은 국가가 될 것으로 예측했다.

인도 주요 경제지들도 올 1~2월 자체 조사를 바탕으로 인도의 임금인상률을 9~18%로 예상된다고 발표했다.²³⁾ 비즈니스 월드(Business World)는 올 1월 실시한 자체 조사에서는 인사 담당자의 62%가 10~20%의 임금인상을 계획하고 있고, 13%의 인사 담당자는 20% 이상의 임금인상을 계획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산업별 임금인상률은 산업의 성장 기대 비율과 정비례하는 경향을 보인다. 인도 주요 경제지 이코노믹 타임즈(Economic Times)는 자동차와 통신업계의 임금인상률을 10~15%로 예상하였으며, 의약 부문과 FMCG 부문의 임금인상률을 약 10~12%로 예측하고 있다.²⁴⁾

휴잇사는 인도 금융권의 임금인상률은 10%대로 기대되며 IT 및 ITeS의 임금인상률은 7~15%로 경력과 능력에 따른 차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발표했다.

기업들의 인적자원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2008년 경기침체로 주춤했던 이직도 늘어나고 있다. 2008년 경기침체는 인도 직장인들 사이에 '고용안정성'에 대해 재고하도록 하였으나 2009년 상반기 이후 내수 산업을 중심으로 경기가 회복되면서 이직을 '새로운 기회'로 여기는 이전 경향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휴잇사의 '2009~2010년 아시아 태평양 지역 임금인상 보고서'에서 인도의 이직률이 13.8%로 아시아 태평양 국가 중 이직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 발표했으며, 마파이

22) India Express, 2010년 3월 4일 "India Inc may give 10.6% salary hike in 2010; Hewitt"
<http://www.indianexpress.com/news/india-inc-may-give-10.6-pc-salary-hike-in-20/586813/>

23) <http://economictimes.indiatimes.com/news/news-by-industry/jobs/India-Inc-plans-to-reward-employees-with-double-digit-increments/articleshow/5526086.cms>

24) <http://economictimes.indiatimes.com/news/news-by-industry/jobs/India-Inc-plans-to-reward-employees-with-double-digit-increments/articleshow/5526086.cms>

(Ma Fai)사는 세계 23개국의 주요 국가 중 인도인의 이직률이 가장 높다고 발표했다.²⁵⁾

■ 맺음말

2010년 인도의 경제가 정상 궤도에 진입할 것이라는 낙관론이 일반적이다. 인도 정부는 GDP 성장 전망치를 8.8%로 발표하였으며,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해 대형 프로젝트를 진행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또한 민간 기업들도 확장을 가속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용시장도 활성화되고 있다. 인도는 소폭 감소하던 경향을 보이던 실업률이 2008년 금융위기로 다시 증가한 것으로 추측되었으나 인도의 고용시장은 비교적 다른 국가들에 비해 빠른 회복세로 돌아섰다. 인도 산업에서 국제 무역 의존도가 높은 귀금속 가공업과 섬유 산업은 회복 경향이 느리지만 다른 산업들은 거의 경기침체 이전의 수준으로 회복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에 따라 고용시장도 활성화되고 있다. 경기 침체로 해고와 임금 삭감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인도 항공 업계도 회복세로 돌아서면서 조심스럽게 신규 고용을 계획하고 있다. 최근 유래 없는 호황을 누리는 자동차 산업과 통신업계에서는 산업의 성장과 대규모 고용창출이 예상되고 있으며, 소비 활성화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FMCG 부문에서도 신입 채용이 기대된다. 경제성장과 고용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임금인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인도는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임금인상률이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경기 활성화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건전한 현상으로 보고 있다. **KLI**

25) Times of India 2010년 3월 18일 “Indians most open about shifting jobs” <http://timesofindia.indiatimes.com/biz/india-business/Indians-most-open-about-shifting-jobs/articleshow/5683679.cms>